PROJECT 05 캔디샵

FORM UI&UX WORK 개인 100%



Design Concept

캔디와 젤리를 판매하는 삽을 만들고, 그와 동시에 간단한 캐릭터 키우기, 방꾸미기를 한다. 단순히 캔디와 젤리를 판매하는 삽이 아닌 즐길 수 있는 장치를 넣어 더욱 다양한 유저가 사용할 수 있고, 재미있게 앱을 사용할 수 있다.



Fonts

Fredoka One

Nanum Gothic

Persona



귀여운게 최고야! **10대 소녀 김지아씨**

Scenario

지마씨는 올해 중학생이 되었다.

젤리와 사랑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양을 특히 좋아하며, 그 중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사진으로 기록하는 편이다. 평소에는 편의점이나 인터넷 서치를 하여 구매하고 있다.

Personality



Complaint

- 자신이 좋아하는 귀여운 젤리와 사탕을 더욱 잘 기록하고 싶다.
- 많은 종류의 간식들을 모아서 한번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.
- 항상 비슷한 브랜드만 있었는데 다양한 브랜드의 간식들도 보고싶다.

Hop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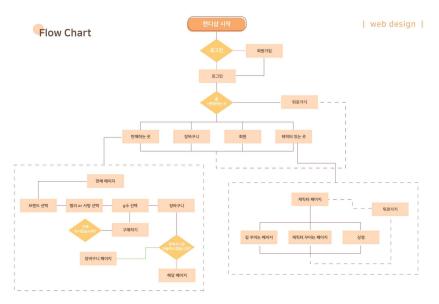
- 자신이 까먹기 전에 누군가 자신의 기록을 태신해줬으면
- 많은 제품이 한눈에 보기 편하면
- 타양한 브랜드가 있었으면

Solution

- 구매한 젤리를 귀엽게 일러스트로 표현하여 꾸밀 수 있게
 테마를 만들어 비슷한 제품끼리 엮어 놓기
- 브랜드병로 모아놓기
- 반응형으로 만들어 사람들이 어떤 기기를 쓰던지 잘 볼 수 있게

Journey Map

감정	©	e	8		0
상황	1. 마음에드는 간식 서치	2. 구매할 사이트 정하기	 3. 구매하기	4. 사이트 닫기	 5. 간식 도착 시 사진찍기
행동	- 품이하는 간식 검색하기	- 흥이하는 간식을 짜는 사이트를 정한다. - 어떤식으로 판매하는지 확인한다.	- 가격이 얼만지 확인한다 몇 g인지 확인한다 살 것이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 사기를 반복한다.	- 주문을 했는지 확인한다. - 하나하나 사이토를 닫는다.	- 택배 은 것을 확인하며 물량이 맞는지 확인한다. - 자신이 마음에 드는 것은 사진으로 남긴다. - 먹는다.
문제	- 관련 브랜드와 사이트가 많아 하나하나 다 보기 이러움 - 먹고실지만 해외사이트라서 함든 경우도 있음		- 대용함으로 파는 곳도 있다 여러 가지를 다 사고 싶지만 혼자 많은 당을 사기에는 가격 부담이 있다. - 많은 것을 합번에 다 먹지 못한다. - 다른 사이트에서 시키면 배달비가 많이 든다.	- 한번에 닫으려다 주문을 하지않고 사이트를 달아버리는 경우도 있다.	한재 먹다가 사진을 찍는 것을 까먹는다. 사진을 찍는 것 보다 더 재미있게 관리하고 싶다. 봉지사이즈가 정해져있어 모아놓고 보니 너무 많다.
해결	- 브랜드를 모아놓는다	- 사이트 안에 여러 브랜드를 넣어놔 장비구나나 힘 등의 가능으로 비교하기 쉽게 한다.	- g수로 판매하여 적은양이라도 다양하게 살 수 있게 한다: - 브랜드를 모아 배달비 부당을 떨어준다.	- 브랜드별로 어떤 것을 골랐는지 정리하며 알려준다. - 브랜드별로의 진행상황을 정리 하여 보여준다.	- 구매한 캘리나 사망을 일러스트화 하여 꾸밀 수 있게 할다. - 숙구로 판매하여 적은망이라도 다양하게 살 수 있게 한다.





- Concept

사탕을 메인 아이콘으로 정하고, 디자인을 진행하였습니다. 작은 사이즈인 런처 아이콘 특성상 아이콘의 색 배열에 있어 눈에 잘 띄도록 하려고 하였습니다.

- sketch



- Mockup

















